

요구자료 감정서 사본 일체

근본의견

공안문제연구소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진보의련 조직활동론
- 나. 作 成 者 : 진보의련 조직활동론 준비팀
- 다. 發 行 處(日) : 상등.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진보의련 조직활동론 준비팀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주로 자본주의하에서의 의료활동액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유인물임.

2. 사회를 기본적으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계급투쟁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에서의 생산관계의 모순의 심화를 역설하고 있는 바, 이는 맑스주의의 사회관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음.

<예시>

기본적으로 모든 자본가는 자본운동의 법칙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된다(1)

자본주의에서 생산현장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공간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노동계급의 투쟁은 바로 생산현장에서 출발하게 되며,--(7)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과 불건강을 초래하는 규정적인 힘은 자본관계-착취관계-그 자체이다(12)

--진보의련의 이념적 지향은 '자본관계의 철폐'이어야 한다(12)

자본주의 착취체제-생산양식-자체를 철폐하고, 노동계급이 사회를 운영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노동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20)

3. 또한 국가를 계급사회의 착취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공적 폭력체계로 보고 있는 바, 이 또한 맑스주의의 계급론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음.

<예시>

국가란 노예제사회, 봉건사회, 자본제사회라고 하는 계급사회의 착취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공적 폭력체계이다(18)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조아독재사회이며 그 국가가구는 부르조아독재이다(18)

4. 사회변혁은 국가변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투쟁세력들과 연대할 것을 역설하고 있음.

<예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당연히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부문운동이다(5)

우리가 추구하는 부문운동의 최종목표는 사회변혁에 있다. 하지만, 사회변혁이라는 것이 국가변혁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지적 성격의 부문운동은 국가변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동전에 기여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변혁을 위한 자신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5)

--생산관계의 모순을 극복하도록 하는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6)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사회를 기본적으로 맑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투쟁으로 보고 있으며,
2. 나아가 국가를 지배계급의 폭력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3.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철폐하고 노동계급이 운영하는 사회변혁을 역설하고 있으므로,
4. 기본적으로 옹공성 문건이라 사료됨.

2000 年 12 月 4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조 용 관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진보의련 부산지부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나. 작 성 자 : 김영수 외

다. 발행처(일) : 진보의련 부산지부(2000. 2)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진보의련 부산지부」의 출범식 자료집으로 4.13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노동자계급정치와 좌파진영의 대응과제 등을 기술하고 있는 2편의 글을 수록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좌파진영(주로 PD계)의 총선투쟁 지침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제점

첫째, ‘노동자계급정치와 4.13 총선투쟁’(김영수)에서 노동자계급 정치를 주장하며 1)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즉 사회주의권력) 수립을 밝히고 있고, 2)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정당화하며 선동하고 있고, 3) 반자본-반보수주의 정치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에 의한 사회주의권력 수립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 한국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반(反)보수주의 정치 혹은 반(反)자본주의 정치가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투쟁과 긴밀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노동자 민중정치의 깃발을 휘날리기 시작하였다... 주르주아계급의 이해만이 관철되는 세상을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바꾸어 낼수 있는 정치적 계급역량이 반(反)보수주의 정치 혹은 반(反)자본주의 정치로 통일되는 과정이다”(4-5면)

“ ...적대적인 계급투쟁 그자체는 계급정치를 현실화하는 과정이다...중략...노동자계급정치는 계급투쟁의 각 공간 등에서 노동자계급의 저항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을 수립하려 한다....”(5-6면)

“ 계급정치란 결코 선거정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중심성은 계급역량과 투쟁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되고 구축된다...노동자계급정치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정치에 대항하는 전략, 즉 노동자들의 계급역량의 강화와 계급이해의 통일성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11면)

-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계급 정치’란 노동자가 주도권을 장악한 정치 즉 사회주의권력을 의미하며, 부르주아계급정치란 자본가가 주도권을 장악한 정치 즉 자본주의권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결국 사회주의권력 수립을 정당화하는 것임.

둘째, ‘2000년 총선투쟁의 좌표’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비판하고 청년진보당 중심의 좌파진영의 총선투쟁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1) 사회주의 지향의 한국사회 근본변혁운동을 정당화하고 있고 2) 가두투쟁 및 합법 정치투쟁 등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3) 반(反)자본주의-반(反)사회민주주의의 기치를 들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노동자 계급투쟁에 의한 한국사회의 근본변혁 즉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 근본변혁을 지향하는 자에 있어 운동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자본에 의한 인간 소외, 가진자의 무산자 착취, 지배권력의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 등에 맞선 싸움, 노동자계급의 해방, 민중의 민주주의 실현, 화폐가치 논리를 초월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경제 정의 실현...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건설, 그밖에도 근본적 변혁의 지향을 표현하는 말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27면)

- 여기의 근본변혁이란 바로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 건설을 상징하는 것임

“ 우리는 노동자주의를 넘어 계급운동으로서 보편성을 갖는 노동자운동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정치파업을 비롯한 노동자 정치투쟁을 주도하는 노동자운동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두정치투쟁과 합법 정치투쟁을 통한 한국좌파의 국민적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2000년 총선투쟁에서 좌파의 국민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反자본주의, 反사회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가칭) 진보진영 공동총선투쟁본부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29면)

- 이는 합법-비합법투쟁의 배합을 통한 좌파세력의 정치세력화와 투쟁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임

3. 總 評

이 문건은 진보의련 부산지부 출범식 자료집으로 건전한 의료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노동자계급정치’를 주장하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통한 노동자권력 수립 즉 사회주의로의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고무,선전하는 것인바, 이문건은 좌익(左翼)성향의 문건이라 분류한다.

2001 年 11 月 14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동 열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제4강 현시기 노동보건운동의 진단1)

나. 作 成 者 : 진보의련 부산지부 노동보건 팀

다. 發 行 處(日) : 상동 (불명, 단 내용상 2000년 경)

2. 分 析

가. 基本性格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은 문건명이 '현시기 보건노동운동의 진단'이라는 勞動運動과 관련하여 매우 전문적인 성격의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에서 볼 때,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정치와 경제발전의 수준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형태의 노동운동의 일 분야의 진정한 발전보다는, 이른바 온건하고 專門的인 형태의 노동운동을 계기로 하여 과거와 현재의 민주화된 대통령의 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계투 변혁투쟁의 鬪爭性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래의 계투 변혁투쟁 지향의 본성을 찾자는 것이다.

즉 현재의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의 경우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유연정책의 결과로 과거의 계투 변혁투쟁 지향성을 상실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노동운동의 계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細部分析

1) 한국의 노동운동의 역사는 청계피복노조라는 명칭으로 노동운동을 수행하다가 분신자살한 전태일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태일의 경우는 평가가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는 한국노동운동의 효시로서 전태일을 상정하는 底意는 다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김대중 정권의 노동운동 자체를 자본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측면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 주장하는 노동운동 활성화 주장의 경우는 현재의 한국사회 대상의 계투 변혁투쟁 指向 노동운동 강화의 의미다.

pp.1-2의 < 1. 들어가며 >의 내용 전체.

pp.2-4의 < (1) 노동보건체계의 3법..... >의 내용 전체.

2) 1993년에 문민정부로 출범한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유연화한 노동운동의 흐름 속에 계급투쟁 지향의 노동운동이 分節化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노동운동의 현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계투 지향 노동운동의 약화를 사투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측면이다.

p.11의 8-32행 : “ 93년 문민정부의 등장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

3) 역시 김대중 정권의 시기에 들어서도 과거의 정권들과 다른 형태의 노동운동의 柔軟化 전략에 의해서 계투지향의 노동운동이 改良主義 그리고 階級妥協主義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계투 지향 노동운동의 약화에 비판적인 思鬪의 관점이다.

p.12의 8-27행 : “ 99년 상반기에 87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4) 김대중 정권의 현재의 시점에서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지배계급에 대한 원천적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노동자중심의 민주주의를 전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운동 자체를 계투 변혁투쟁의 측면에서 조명하는 측면의 내용이다.

p.14의 < (3) 노동자만의 노동운동이 아닌.... 노동보건운동 >의 내용 전체.

3. 總 評

2001년의 현시기 '노동보건운동'의 측면에 대해서 진단하는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문건을 분석했다.

외형의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보건의료 향상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보건의료의 향상을 빌미로 한 노동운동의 계급투쟁 지향의 투쟁의 확대와 강화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본 문건의 경우는 문민의 김영삼 정권과 현재의 김대중 정권의 노동운동을 계투 변혁투쟁 강화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반정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PDR과 관점의 <용공성>의 내용인 문건이다.

2001 年 月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오 문 균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진보의련 2001년 정기총회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진보의련(2001. 2.3)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보건의료운동 부문에서 좌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약칭; 진보의련)의 《2001년 정기총회 자료집》으로 동 단체의 2001년 사업기조, 각 부서 사업계획 및 재정결산서 등 동 단체의 활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제점

첫째, 진보의련이 좌파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임을 자인하며 이를 선동하고 있다. 이는 진보의련이 건전한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부문에서 현체제를 부정하는 좌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결국 현체제를 부정하는 시각이다.

“ 2001년 진보의련 사업기조(안) - 좌파 보건의료운동의 주도권 획득을 위하여- ...중략... 좌파보건운동세력은 연합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을 보인다... 또한 좌파 보건의료운동이 전체운동과 어떻게 공조하면서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도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진보의련이 나가야 할바는 시민운동방식의 보건의료운동을 극복하고 민중운동 지향의 보건의료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3-5면)

둘째, 진보의련의 조직성격이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운동체 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진보의련의 근본적 임무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상품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여 보건의료를 사회화하는데 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의 사회화는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때만 현실가능하다. 진보의련은 노동자 민중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는 세상,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의 실현을 위하여 전진할 것이다. 1.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하여 진보적 보건의료운동(보건의료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2. 한국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지향한다 3.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기반한 조직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구축하고, 진보적 세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한국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 변혁(한국사회변혁)에 기여한다”(3면)

- 진보의련이 반(反)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변혁에 기여하는 조직임과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의 실현을 지향함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함을 보여주는 것임.

- 여기의 ‘보건의료의 사회화’란 사회주의적 개조를 의미하는데 이의 근거는 ① 반자본 진보노선을 표방하며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세상(사회주의를 상징)을 지향하고 ② 특히 동 단체의 기관지인 《의료와 진보 4호》에 수록된 ‘보건의료의 역사와 전망’이란 글에서 “의료의 사회화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명백히 나타나 있음.

세째, 보건의료운동이 ‘계급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운동권에서 지칭하는 ‘계급운동’이란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계급)의 이익과 목적을 관철하는 운동으로 자본가계급의 억압착취로부터 벗어나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투쟁방식의 사회주의운동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사회주의 계급운동론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그것은 계급운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주체성과 계급성은 변혁적 보건의료운동이 지녀야 할 핵심가치이다...”(4면)

“ 시민운동중심의 탈계급적 보건의료개혁과 정책중심의 보건의료운동의 한계성을 폭로하고 변혁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부분의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한다”(9면)

“ 노동계급성에 기반한 진보적 실천을 내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회원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10면)

네째, 맑스레닌주의운동 즉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운동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실현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 .교육국 2000년 사업평가와 2001년 계획.... 중략... 전체운동이 이념적 혼동에서 헤메이고 개량화되었듯이 진보의련 조직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회원들이 자신의 철학,세계관, 이념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16면)

다섯째, 현정권에 대항한 반자본/신자유주의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현정권 및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 2001년 진보의련 무엇을 할 것인가?중략...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자본주의노선에 입각한 계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1) 김대중정권과 총자본의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에 맞서 투쟁한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변혁성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이를 비판하는 것이 진보의련의 임무이다”(8-9면)

여섯째, 보건의료운동이 개량화되어 ‘사회변혁운동- 반자본주의운동’의 성격이 약화되고 있음을 아쉬어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운동의 본질이 사회변혁운동(반자본주의- 사회주의지향운동)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 보건의료운동은 ...개량주의운동으로 경사되었다. 건강문제와 자본주의체제의 연결고리를 찾고 보건의료운동을 사회변혁운동- 반자본주의운동- 으로 위치지우려는 움직임이 약화되었다...”(16면)

“ 인간의 특성을 우리는 1)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속에 투쟁하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

3. 總 評

이 문건은 「진보의련」의 2001년 활동방향과 지침을 수록하고 있는 정기총회자료집으로 동 단체가 한국사회변혁을 위해 보건의료부문에서 반자본 사회주의운동에 복무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맑스레닌주의운동을 복원하여 보건의료부문에서 계급운동을 전개하자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며 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좌익성(左翼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9 月 20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동 열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진보의련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진보의련(2000. 3. 19)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보건의료운동 부문에서 좌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약칭; 진보의련)의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자료집》으로 동 단체의 조직구성, 진보의련 회칙, 진보의련 부산지부 활동 사업과제 등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제점

첫째, 진보의련 회칙의 전문과 제2조(목적)에서 동 단체의 조직성격이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운동체 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진보의련 회칙 전문... 진보의련의 근본적 임무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상품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여 보건의료를 사회화하는데 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의 사회화는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때만 현실가능하다. 진보의련은 노동자 민중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는 세상,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의 실현을 위하여 전진할 것이다...중략...제2조(목적) 연합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입각하여 진보적 보건의료운

운동을 전개한다 2. 한국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지향한다 3.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기반한 조직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구축하고, 진보적 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한국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 변혁에 기여한다”(4면)

- 이른바 운동권에서 말하는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이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임.

- ‘보건의료의 사회화’란 사회주의적 개조를 의미하는데 이의 근거는 동 단체의 기관지인 《의료와 진보 4호》에 수록된 ‘보건의료의 역사와 전망’이란 글에서 “의료의 사회화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나타나 있음.

-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이란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충실하고 이를 관철하는 정신으로 북한에서는 ‘당성’이라고 하는데, 맑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혁명정신을 의미함.

둘째, 진보의련이 좌파운동조직과 연대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진보의련이 건전한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부문에서 현재 체제를 부정하는 좌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진보의련은 무엇을 할것인가?... 1. 노동자계급의 보건의료운동 바로 진보의련 활동론을 정립한다....중략.... 노동자,도시빈민 등과의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적극 결합한다... 중략... 4월 총선을 필두로 좌파운동 조직과의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조직의 내용을 유포시키고 좀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진 노동자, 민중운동이 되는데 일조할수 있도록 한다”(11면, 13면)

3. 總 評

이 문건은 「진보의련」의 2000년 제1차 중앙위원회 자료집으로 동 단체가 한국사회변혁을 위해 보건의료부문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사회화투쟁에 복무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이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며 고무선전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좌익성(左翼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9 月 2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동 열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진보의련 2000년 정기총회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진보의련(2000. 2. 20)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보건의료운동 부문에서 좌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약칭; 진보의련)의 《2000년 정기총회 자료집》으로 동 단체의 1999년도 사업평가, 2000년 사업과제, 조직구성(개정안), 진보의련 회칙 등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제점

첫째, 보건의료운동이 자본주의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며,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의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정치이론의 핵심 계급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의 타도를 주장하는 것이다.

“ 노동자계급의 불건강의 원인은 자본-임노동관계 자체이며, 보건의료운동은 자본임노동관계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다... 중략...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관계를 철폐해야 함을 선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중략... 건강할 권리를 위한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의 하나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17면)

둘째, 진보의련 회칙의 전문과 제2조(목적)에서 동 단체의 조직성격이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운동체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진보의련 회칙 전문... 진보의련의 근본적 임무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상품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여 보건의료를 사회화하는데 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의 사회화는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때만 현실가능하다. 진보의련은 노동자 민중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는 세상,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의 실현을 위하여 전진할 것이다...중략...제2조(목적) 연합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입각하여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한다 2. 한국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지향한다 3.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기반한 조직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구축하고, 진보적 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한국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 변혁(한국사회변혁)에 기여한다”(19면)

-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이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임.

- ‘보건의료의 사회화’란 사회주의적 개조를 의미하는데 이의 근거는 동 단체의 기관지인 《의료와 진보 4호》에 수록된 ‘보건의료의 역사와 전망’이란 글에서 “의료의 사회화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힌데서 나타나 있음.

-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이란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충실하고 이를 관철하는 정신으로 북한에서는 ‘당성’이라고 하는데, 맑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혁명정신을 의미함.

세째, 진보의련이 좌파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진보의련이 건전한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부문에서 현체제를 부정하는 좌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활동평가... 중략... 지난 2년간 정지되었던 연대사업이 강화되었다. 건강연대회의, 공공의료연대회의, 이상관 공대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실천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대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좌파적 보건의료단체간의 연대가 오랜만에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라 할수 있다...”(6면)

네째, 보건의료상황 분석에서 노동자계급성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좌익권과 북한에서 지칭하는 '노동계급성'이란 "노동계급이 자기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는 입장과 품성"(북한 정치사전, 1973년판, 321면)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보건의료운동에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정신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보분석회의는 이념적으로 노동자계급성을 분명히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정책적 무기를 제시할수 있도록 하는 것..”(11면)

3. 總 評

이 문건은 「진보의련」의 2000년 활동지침을 수록하고 있는 정기총회자료집으로 동 단체가 한국사회변혁을 위해 보건의료부문에서 자본주의체제를 철폐하는 계급투쟁에 복무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이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며 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좌익성(左翼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9 月 2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등 열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발기인대회

나. 작 성 자 : 김용익 외

다. 발행처(일)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1994. 9.24)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보건의료운동 부문에서 좌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약칭; 진보련 or 진보의련)의 《발기인대회 자료집》으로 발기제안서, 격려사, 발기선언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제점

첫째, 진보의련의 조직목표가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진보적 변혁운동(즉 사회주의지향)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운동단체 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른바 진보적 변혁사회라는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 이제 한국사회 보건의료운동은 대중운동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반자본 진보운동으로 방향타를 분명히 잡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중략...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보건의료 대중운동을 전개하자.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보건의료대중운동의 광범위한 형성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진전과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물줄기를 창출하는 것이며, 자본자적 보건의료체계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한국사회 보건의료현실을 극복할수 있는 유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5면, 8면) 외 12면 등

- 여기서 진보(의)련이 반(反)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변혁에 기여하는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진보사회라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임을 시사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운동권에서 지칭하는 진보란 칼 맑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사회(낡은사회)를 지양하고 공산주의(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역사발전의 필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라며 이를 진보라고 칭함. 진보련의 조직과제가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것은 아래의 주장에서도 확임됨.

둘째, 보건의료운동의 과제가 사회주의적 과제로 변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운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체제변혁적인 사회주의운동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정당화하고 지향하는 주장이다.

“ 보건의료부문운동에 있어서도 과제는 유사합니다... 상층본건의료인들은 운동의 과제가 사회주의적 과제로 변화하면서 자신의 계급적 한계로 말미암아 운동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대중조직의 이완과 침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운동을 변혁적이게 할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서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14면)

세째, 보건의료부문에서 노동자 계급운동의 일환으로 반자본 진보노선투쟁을 주장하며 이는 노동해방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운동권에서 말하는 이른바 '노동자계급운동'이란 자본가계급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관철하는 운동 즉 사회주의운동을 의미하며, 또한 '노동해방'이란 자본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사회주의(공극적 공산주의)사회 실현을 상징하는 용어인바, 이는 보건의료운동의 사회주의 지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 ...보건의료부분에서도 노동계급운동의 반자본 진보 대의를 현실화할수 있는 투쟁의 매개를 찾아낼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전국적으로 모인 노동자들의 공통의 이해와 목표, 그것은 노동해방입니다....”(16-17면)

3. 總 評

이 문건은 「진보(의)련」의 결성준비를 알리는 발기인대회 자료집으로 동 단체가 한국사회변혁을 위해 보건의료부문에서 반자본 진보운동을 전개하며, 보건의료운동의 과제가 사회주의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며 고무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좌익성(左翼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9 月 2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동 열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진보의련 연수교육 자료집(97)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 운동연합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 운동연합”에서 발행한 391쪽 분량의 연수교육 자료집으로써,

0 전반적인 내용이

-‘오늘날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 경향과 문제점’, ‘각국의 의료제도’, ‘보건의료 정치경제학’, 등 다양한 논제들로 구성되어 있음.

2) 내용 분석

(1)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계급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합법, 비합법 정당운동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노동자에게 진실로 필요한 정치조직이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정치조직 그 자체가 아니라, 변혁적 정치이념을 지닌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계급정당’임을 우리는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노동자 정치조직

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노조운동을 경제투쟁에 한정시키고 정치투쟁을 독점하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대중이 직접적인 자기조직들이 한층 능동적이고 활기차게 정치투쟁에 나서도록 힘껏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36쪽)

-당의 계급적 성격...비합법적 노동자계급 전위정당과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계급연합정당 운동입니다. (48쪽)

(2) 마르크스의 혁명이론을 찬양선동 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따라서 지금까지...마르크스주의는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57쪽)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 토대는 결코 그것의 과학성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토대 덕분에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일 수 있는 것이다...루카치가 요구한 사회적 보편성을 마르크스주의는 갖추고 있다...프롤레타리아트는 보편성을 구현한 계급이다. 한편으로는 인류 전체에 해방과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지배할 계급도 요구하지 않기에 인류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59-60쪽)

-위에서 보았듯이 노동계급 혁명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 자리에 앉히고 민주주의의 전투에서이기는 것이다...계급 없는 사회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궁극 목표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지녀 온 열망임은 물론이다...마르크스는 실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모순을 극복했다. (62-63쪽)

-마르크스주의 역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

아 혁명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만일 마르크스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관점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67쪽)

- (3) 한국 사회에서 소수의 자본가들이 지배계급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계급모순이 핵심적인 모순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계급만이 이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한국사회에서 대자본가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들은 지배계급의 핵심을 위치하고 있다. (95쪽)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모순은 가장 핵심적인 모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반 노동대중들의 생활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계급의 운동의 몫이 크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의 제 모순을 해소적어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세력은 여전히 노동자계급이다. (100쪽)

- (4) 총파업 투쟁을 정권 타도, 노동해방, 민중해방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예문 >

-선배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총파업투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노동법 개악 분쇄를 뛰어 넘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타도 투쟁으로 발전시키자. 그리하여 나아가서는 노동해방, 민중해방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총파업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188쪽)

- (5) “진보련”과 “민의련”이 좌파적 이념지향을 확고히 하고 새로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진영의 조직적 과제로 학생보건의료

운동 복원, 기존의 성과를 계승하여 진지구축에 매진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예문 >

-원칙에서...최근 구성된 진보련과 민의련은 좌파적 이념 지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바, 사실은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원칙에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이들은 강력한 '반동'으로 작용하고 있다. (251쪽)

-광범위한 보건의료 대중단체들이 보건의료 정치운동을 자기 운동으로 받아 안고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보적 이념과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보건의료정치운동을 실천할 조직은 기존 대중단체와 병립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271쪽)

-그 다음으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진영의 조직적 과제를...학생보건의료운동의 복원이 시급하다...기존의 성과를 계승하여 진지구축에 매진하자. (284쪽)

(6) "진보의련"이 한국 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지향하고 진보적 계 세력과 연대하여 한국 사회변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반 자본 노선에 입각한 보건의료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반 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보건의료대중운동의 광범위한 형성은...한국 사회 보건의료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309쪽)

-명칭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 운동 연합"이라 칭하고...연합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다...보건의료 대중운동을 전개한다...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기반하여 진보적 계 세력과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변혁에 기여한다. (335쪽)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혁명이론을 찬양선동하고 이를 프롤레타리아 관점에서 변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진보련”과 “민의련”이 좌파적 이념 성향을 확고히 하고 새로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반 자본 노선에 입각한 보건의료대중운동의 전개를 촉구하는 한편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계급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한국사회의 계급모순을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해소시켜 나갈 것과 총파업 투쟁을 정권타도 노동해방, 민중해방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진보련”과 “민의련”이 새로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맑스의 혁명이론 등을 찬양선동 하는 한편 계급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총파업을 통한 정권타도, 노동해방, 민중해방 투쟁 등을 선전선동 하고 있는 좌익성향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건으로 분류된다. < 끝 >

2001 年 9 月 21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연구2부장
인
송 경 호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진보의련(준) 짧은 소식 창간준비 3호"

나. 作 成 者 : 진보의련(준) 사무국 편집부

다. 發 行 處(日)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준) (1995. 1. 16.)

2. 分 析

가. 概 要

본 문건은 이른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준)'에서 발행한 29쪽 분량의 창간준비 소식지로서, 맑스의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사회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나아가 자본주의의료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항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의료방법인 예방의학을 자본주의의 의료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問 題 內 容 分 析

1) 자본주의사회에서 병원구조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의사들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는 바로 병원구조를 통해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후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이 착취당하고, 소외당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는 말살된다고 하는 맑스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의 권위주의와 잠무위주의 인턴생활은 ... 자본주의사회에서 병원구조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의사들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이었다."(18쪽 5-10행)

2) 현재 요구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의료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맞서 진보적 보건의료 운동의 방향성과 정책안들을 만들어내고 보건의료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4년도에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국제화이데올로기 공세로 전체변혁운동진영에 공세를 가해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의료의 강화가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보건의료개혁의 내용이였다. 지금 현재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의료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맞서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방향성과 정책안들을 만들어내고 장기적으로 ... 보건의료 활동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시기인 것이다.”(20쪽 12-19행)

3) 예방을 의학을 하게 된 계기를 기술하면서,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보건의료를 세우기 위한 노력과 실패의 경험들.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에 의한 끊임없는 문제제기 등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 볼 때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의 정책역량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의료체제를 미화하고, 의료적 차원에서 자본주의국가의 의료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1.예방의학을 하게 된 계기 ...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보건의료를 세우기 위한 끈질긴 노력과 실패의 경험들,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에 의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등등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의 정책역량은 아직 미흡하다.”(18쪽 1-21행)

4) 예방의학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한 소련에서 생겨났고,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이 자본주의 의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예방의학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바로 자본주의 의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의료방법인 예방의학을 이용했다는 의미이다.

“어느 예방의학교수의 말씀처럼 예방의학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한 소련에서 최초로 생겨났고,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이 자본주의 의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예방의학을 이용했다.”(18쪽 26-29행)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본주의사회에서 병원구조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의사들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자본주의적 의료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맞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방향성과 정책안들을 만들어내고 보건의료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보건의료를 세우기 위한 노력과 실패의 경험들,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에 의한 문제제기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 볼 때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의 정책역량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4) 예방의학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한 소련에서 생겨났고,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이 자본주의 의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예방의학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문건은 맑스의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사회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의료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항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사회주의 의료방법인 예방의학을 미화하며, 이를 자본주의 의료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사회주의 이론을 수용, 그것에 동조하면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 의료체제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容共’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1年 9月 24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鄭元詠

元詠

印

확인	분석과장
인	정영애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진보의료 조직활동론

나. 作 成 者 : 진보의료 조직활동론 준비팀/ 권정기

다. 發 行 處(日) : 진보의료 조직활동론 준비팀 (2000/ 09/ 18)

2. 分 析

가. 基本性格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進歩를 표방하는 관점에서 의료활동의 문제를 다루는 문건이 분석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건의 경우는 외형상 측면에서 資本主義를 축으로 하는 한국사회의 의료 제도의 實踐上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거론의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내면의 측면에서 볼 때, 의료의 改善을 빙자한 한국사회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基本軸으로 하는 정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를 階級矛盾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청진당'과 '민주노총' 등과 연대하여 투쟁하여, 體制自體를 변혁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단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경우는 철저히 직접적인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보다는 의료활동의 改善이라는 위장된 형태의 간접적인 투쟁의 方法을 활용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나. 細部分析

1)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계층과 피지배의 노동자 계층의 사이에서는 不平等이 더욱 심화된다는 관점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민간중심의 의료체계가 被支配階層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한 자본주의의 체제와 관련의 의료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아니다. 계급모순의 관에서 資本主義 自體를 비판하는 관점이다. 의료운동의 경우는 계투 지향 노동운동의 부분운동이며, 사회 變革運動의 완성이 최종의 목표라고 단정하고 있다.

pp.1-4의 < 1. 자본주의하에서 건강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의 내용 전체.

2) 진보를 표방하는 의료단체의 단체의 활동에 대한 言及의 내용이다. 外形의 측면에서는 건강에 대한 의식의 지평을 확장하자라는 측면의 주장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주장의 경우는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矛盾關係의 해결에 노력하자는 階鬪 變혁투쟁 당위화의 내용이다.

pp.5-9의 < 3.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달성하기 위한 진보의련의 전략 >의 내용 전체.

3) 위의 基本論에 입각한 활동과제 관련의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과제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한국사회가 지향하고 잇는 資本主義 체제를 근본적으로 철폐하는 의미로 당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공산주의 식 부정의 내용이다.

pp.9-12의 < 4. 활동과제 >의 내용 전체.

4) '연대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대상의 계투 변혁투쟁을 추진하는 '靑進黨'과 '노동자의 힘' 등의 단체와 연계하여 본격적인 체제부정의 계투 변혁투쟁에 대한 활성화의 내용이다. 연계하여 투쟁의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pp.12-16의 < 5. 연대활동 >과 < 6. 진보의련의 조직적 체계는 ? >의 내용

5) '토론자료' 관련의 내용이다. 위의 내용들과는 별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축으로 하는 國家體制를 부정하는 관점이다. 위의 진보의료 위장의 계투 변혁투쟁의 당위화의 내용이다.

pp.17-20의 < 토론자료/ 정치이념 정립과 정치조직의 연대에 대하여 >의 내용 전체.

3. 總 評

外形의 진보적 관점의 醫療活動을 표방하는 단체의 문건을 분석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는 진보적 관점의 의료 활동의 실천과 관련 주장의 경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根本적으로 자본주의 제도에 근간을 두는 정치제도하에서의 의료활동의 부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으로는 階級矛盾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기초하는 정치제도 自體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기본적인 투쟁의 원칙과 담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직접적인 階級鬪爭의 실천보다는 원론적인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의료활동을 표방한 階級矛盾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당위화를 표방하는 <용공>의 내용인 문건이다.

2001 年 月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오 문 균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99 진보의련 여름 회원 학교

나. 作 成 者 : 올린이 : 사랑투(박주홍) 등

다. 發 行 處(日) : 진보의련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PC통신 「진보의련-자유게시판(go SGJBYR)」에 사랑투(박주홍) 등의 명의로 올린 총14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0 전반적인 내용이

- 여름학교를 통해 「진보의련」의 내부역량 강화를 주장하면서, 회원의 많은 참여를 선동하고 있다.
- 또한 의료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의료보험료 50%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 「진보의련」의 여름학교 강좌로 세계자본주의 : 마르크스 공황론 이해, 신자유주의, 노동자 정치운동과 정당, 한국사회 보건의료운동의 평가와 발전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 (1) 「진보의련」의 여름학교를 통해 회원간 동질성 확보와 내부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진보의련에서는 회원들간의 동질성 확보와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현 단계 발전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름 회원학교를 진행합니다. (1쪽)

(2) 「진보의련」의 여름학교 강좌로 세계 자본주의 : 마르크스의 공황론 이해, 노동자 정치운동과 정당, 한국사회 보건의료운동의 평가와 발전과제 등을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고,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 예문 >

-'99년 여름 진보의련 [SUMMER SCHOOL]에 초대합니다...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세계자본주의 : 마르크스 공황론 이해...한국의 자본주의...한국사회 보건의료운동의 평가와 발전과제. (4쪽)

-공황론 이해...과잉생산, 과잉투자, 과잉신용 표면화되어 채무지불 불능발생...생산력: 노동력과 생산수단으로 구성. (7쪽)

-생산력의 증대...즉 노동대중의 빈곤. 생산력은 무한히 발전, 생산력은 소비관계가 입각하고 있는 좁은 기초로 충돌한다. (9-10쪽)

(3) 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면서 국고 50%의 의료보험료 지원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오늘은 공공의료연대회의에서...의료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의료보험료 50%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에 갔다. (5쪽)